

# 난파 홍영후 생가

---

화보

위치 및 지형

건물의 배치 및 현황

건축적 특성

연혁

활용방안





난파 홍영우생가 전경



난파 홍영우생가 전면

난파 홍영우생가



난파 홍영우생가 전면



난파 홍영우생가 우측면



난파 홍영우생가 배면



난파 홍영우생가 지붕



난파 홍영우생가 내부



난파 홍영우생가 내부



난파 홍영우생가 방



난파 홍영우생가 방



난파 홍영우생가 가구구조



난파 홍영우생가 초석



난파 홍영우생가 나무절구



난파 홍영우생가 아궁이



난파 홍영우생가 전시 사진



난파 홍영우생가 안내표지석



본 건물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멸실되었던 것을 1986년에 복원한 것으로 목조 초가 4칸의 ‘ㄱ’자형 구조의 가옥이다.

## 1. 위치 및 지형<sup>1)</sup>

1) 경기도 메모리 화성 지명 유래 참조  
(<https://memory.library.kr>)

난파 홍영후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흥난파길 32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에 속한다. 이 가옥은 멸실된 가옥을 복원한 가옥이다. 본래 남양군의 중심지로, 음덕리면, 화척지면, 둔지곶면으로 나뉘어져있다가 부군면 통폐합으로 수원군 음덕면으로 통합되었다. 해방 이후 화성군 남양면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 오산시에 있던 화성군청이 이곳으로 이전하고, 2001년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되면서 남양동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지역 주민의 요청으로 2014년 다시 남양읍으로 전환되었다.



난파 홍영우생가\_파노라마



난파 홍영우생가\_위치도

## 2. 건물의 배치 및 현황

난파 홍영우 생가는 대지면적 562㎡에 1986년 12월에 멸실한 초가를 지역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복원한 가옥이다. 건물은 초가로 안채 1동으로 구성된 가옥으로서 현재 봉당벽에 사진을 전시하는 것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증을 통하여 복원된 가옥으로 방 2개와 부엌으로 단출하게 구성된 집에는 아담한 마당이 딸려있고 마루가 없다. 아마도 난파의 초상화와 생전에 사용했던 유품을 찍어놓은 사진 등을 전시하기 위하여 현재의 구조로 구성한 듯 보인다. 전시용도 이외에는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화성 마도 일반산업단지와 노하산업단지를 지나는 국도 77번에서 영진 바이오 일반산업단지 방향으로 활초리 마을회관 인근 시골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 마도 산업단지를 비롯한 많은 산업단지들이 인접하고 있다.



난파 홍영우생가 전면



난파 홍영우생가 표지석

### 3. 건축적 특성

본 건물은 단층 초가가옥으로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초 멸실되었던 것을 1986년에 복원한 것으로 목조 초가 4칸의 ‘ㄱ’자형 구조이다. 방 2개와 부엌으로 단출하게 구성된 집에는 아담한 마당이 딸려있고 건물 처마 밑으로 난파의 초상화와 생전에 사용했던 유품을 찍어놓은 사진 몇 장이 걸려 있다. 기단과 기초는 자연석으로 목조 가구에 벽체는 토벽으로 온돌과 봉당을 설치하였다.

현재의 생가 건물은 의외로 작고 소박한 느낌을 주는 단출한 규모의 초가집으로, 마루는 없으나 마루가 있을 자리는 공간으로 비워져 있고 부엌 앞에는 나무절구가 오래된 모습으로 자리해있고, 부엌 앞에는 나무절구가 자리해있고, 불을 때는 아궁이가 있어 환기 때문에 설치되어있는 통풍구도 보이고, 그 아래엔 선반용도인 시렁을 설치하였다.



난파 홍영우생가 전경



난파 홍영우생가 시렁



난파 홍영우생가 내부



난파 홍영우생가 이궁이

#### 4. 연혁

우리나라 현대음악의 여명기를 개척한 난파 홍영후(1898~1941년)의 생가이다. 본 가옥은 홍난파 선생이 태어나서 약 1년간 보내던 집으로 1년 보내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한다. 난파 관련 생가 및 가옥은 경기도 화성과 서울 홍파동에도 있다. 홍난파는 1898년 4월 10일 흥순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1912년 YMCA 중등부를 졸업하고 1915년 조선정악전습소양악부를 마친 뒤 동 전습소의 교사가 되었다. 1918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우에노 음악학교에서 2년간 수학한 뒤 귀국하였으며, 1920년 「봉선화」를 작곡하였다. 1922년 연악회(研樂會)를 창설하였고 1925년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졌다. 한편 한국 최초의 음악잡지 『음악계』를 발간하였을 뿐 아니라 소설도 발표하여 문학적 재질도 보였다.

1926년 다시 일본 도쿄 고등음악학교에 편입하고 이듬해 도쿄교향악단의 제1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다. 1929년 귀국하여 중앙보육학교 교수를 역임하였고, 1931년 미국으로 건너가 셔우드음악학교에서 연구하고 1933년 귀국하였다. 귀국 후 이화여전 강사를 지낸 뒤 경성보육학교 교수로 전임하였다. 1935년부터 「백마강의 추억」 등 모두 14곡의 대중가요를 나소운이라는 예명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1941년 8월 지병인 늑막염이 악화되어 43년간의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봉선화」, 「성불사의 밤」, 「옛동산에 올라」 등 가곡과, 「달마중」, 「낮에 나온 반달」 등의 동요곡이 있다.



난파 홍영우생가 전시사진



난파 홍영우생가 전시사진

## 5. 활용방안

본 가옥은 홍난파 선생이 태어나서 약 1년간 보내던 집으로 1년 보내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한다. 난파 관련 생가 및 가옥은 경기도 화성과 서울 흥파동에도 있다. 현재 난파 홍영우 생가는 가옥의 봉당벽에 사진을 전시하는 것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넓은 대지위에 안채 1동으로 구성된 가옥으로 복원한 초가로 생가 주변에 도로를 내면서 주변을 정비하게 된다면 서울 홍난파 가옥과 연계한 전시관이나 혹은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의 방안이나 현대음악과 관련되거나 박물관이나 근대 관련 장소로 활용하거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여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부록 개요서

|        |                                      |
|--------|--------------------------------------|
| 문화재명   | 난파 홍영우 생가                            |
| 문화재지정별 | 비지정                                  |
| 문화재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일반 281 (남양읍 흥난파길 34) |
| 연면적    | 대지 562㎡, 연면적 121.13㎡, 건축면적 50.57㎡,   |
| 건물 수량  | 1동                                   |
| 분류     | 주택                                   |
| 주요구조   | 목조, 토벽                               |
| 주용도    | 전시용 가옥                               |
| 주요외장재  | 목조                                   |
| 지붕재    | 초가                                   |
| 창호     |                                      |
| 높이     | 단층                                   |
| 건립연도   | 1986년 복원                             |
| 활용방안   | 전시공간                                 |

